

공간에 채운 약동하는 에너지...박기원 '성장공간'展

기사입력 2016/01/05 15:23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박기원(52) 작가가 5년여 만에 개인전을 연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313 아트프로젝트에서 6일부터 시작될 박 작가의 전시에는 밝은 빛의 작품이 설치됐다.

1층 공간 창가에는 투명한 노란빛 비닐이 드리워졌고 2층 공간에는 주홍, 오렌지, 붉은빛의 캔버스 작품이 걸렸다.



비닐 작품이 설치된 1층 공간 한쪽 벽에는 작가의 회화작품 '넓이' 시리즈 1점만이 전시됐다.

그 외의 공간은 여백으로 남겨뒀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빛 비닐, 주홍빛 회화가 두드러지도록 했다.

위층 공간에 걸린 '넓이' 시리즈 작품에선 사선, 수직, 수평의 짧고 얇은 선의 흐름이 보이긴 했지만 일관된 색채의 간결함을 보여줬다.

그간 한지로 회화 작업을 해 온 작가는 이번에 캔버스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5일 기자들과 만난 박 작가는 "주어진 전시 장소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며 "때로는 미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개인전 제목은 '성장공간'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시각적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작품을 설치하고자 했다"며 "여백이 있는 공간을 그러한 움직임과 에너지로 채워 그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을 갖도록 연출하려 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패션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과의 컬래버레이션 전시인 '디올 정신', 금호미술관의 '열은 공기 속으로'전에 함께 했다.

2005년에는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는 2월5일까지. ☎ 문의 02-3446-3137.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1/05 15:23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